



내년부터 바뀌는 골프 규칙

내년부터 골프를 할 때 일명 '투 터치'로 불리는 더블 히트에 벌타를 매기지 않는다. 또 벙커에서 공 주변 이외의 모래에 클럽이 닿아도 되며, 깃발을 꽂은 채 그린 안팎 어디에서든 퍼팅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규칙은 종전 규칙보다 경기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두 번 치기' 벌타 삭제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하다 간혹 발생하는 게 투 터치다. 웨지 클럽 헤드로 공을 쳤는데, 그 공이 의도치 않게 헤드에 다시 또 맞는 경우다. 이전에는 1벌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벌타가 없어진다.

▶ 아웃 오브 바운즈(OB) 때 2벌타 드롭 가능

공을 잃어버렸거나 오비가 난 경우 2벌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드롭해서 칠 수 있다. 한국 아마추어 골퍼들은 통상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했는데, 이 방식으로 세계 골퍼들이 바뀌는 셈이다. 이전에는 1벌타를 받고 원래 쳤던 곳으로 돌아가서 치는 게 룰이었다.

▶ 무릎높이에서 드롭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또는 페널티 구역에서 구제를 받을 때 공을 무릎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된다. 이전에는 어깨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했다.

▶ 가장 긴 클럽 기준으로 구제 구역 설정

구제 구역을 설정할 때 하기 위해 골프백에서 가장 긴 클럽(퍼터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들고 있던 클럽으로 구역을 설정할 때도 범위 기준은 백 속에 들어있는 가장 긴 클럽으로 한다. 종전에는 클럽 길이에 대한 설정이 없었다.

▶ '저절로 움직인 볼'은 노 페널티

퍼팅 그린에서 우연히 볼이 움직인 경우 더 이상 벌타가 없다.

▶ 깃대 꽂고 퍼팅해도 문제 없어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된 볼이 홀에 꽂혀 있는 깃대를 맞춘 경우 더 이상 벌타를 매기지 않는다.

▶ 손상된 그린 모두 수리 가능

골퍼들은 종전까지 볼마크(공이 떨어져 파인 자국)만 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스파이크 자국은 물론 신발에 의한 손상, 동물에 의한 손상 등 퍼팅 그린 위의 모든 손상들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하느라 경기시간을 지나치게 지연해선 안된다.

▶ 해저드 내에서 클럽이 물에 닿아도 OK

페널티 구역 안에서 클럽으로 지면 또는 물에 접촉해도 된다. 샷에 방해되는 나뭇잎 등의 루즈 임페디먼트를 움직일 수도 있다.

▶ 벙커 모래에 클럽 닿아도 괜찮아

벙커에서 공 주변에 흩어져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나 무조각 등)를 치우거나 손이나 클럽으로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래에 접촉한 경우 벌타가 없다. 벙커에서 언플레이어블도 선언할 수 있다. 2벌타를 받고 벙커 밖을 나와서 치면 된다.

▶ 경기 속도 촉진

볼을 찾는 시간도 현행 5분에서 3분으로 줄어든다. 경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다. 스트로크를 하는 데에도 총 40초가 넘지 않도록 권장한다.

▶ 거리 측정기 사용 가능

거리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로컬 룰로 사용을 금지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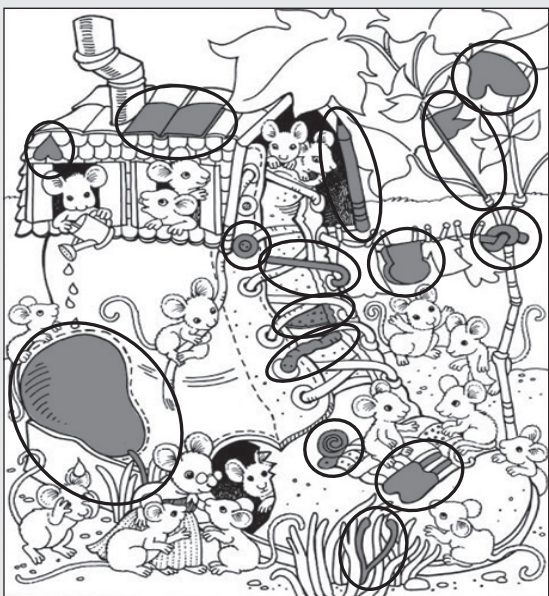
▶ 손상된 클럽도 사용 가능

종전에는 경기 도중 손상된 클럽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골퍼가 화풀이로 퍼터를 집어 던져 구부러진 경우 웨지로 퍼팅하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온 게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원인으로 클럽이 손상됐더라도 그 클럽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기 중 손상된 클럽을 새로운 클럽으로 교체할 수는 없다.

▶ 캐디의 '뒤 봐주기' 금지

목표물을 설정하고 정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캐디가 선수의 뒤에 서 있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선수가 공을 치기 위해 스탠스를 잡기 전까지는 허용된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 숨은그림찾기 문제는 P32에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통산 득점 5위 등극

르브론 제임스가 NBA 통산 득점 역대 5위에 올라섰다.

15일 농구전문매체 '루키'에 따르면 르브론 제임스는 전날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2018-2019 NBA 정규리그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경기에서 44점 10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르브론은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31,381점을 기록 중이었다. 통산 득점 부문에서 윌트 체임벌린의 31,419점에 이어 역대 6위 기록. 그러나 르브론은 이날 무려 44득점(통산 31,425점)을 올리며 체임벌린의 기록을 넘어 자신의 통산 득점 순위를 5위로 끌어올렸다. 이 부문 역대 1위는 카림 압둘-자바(38,387점)이며, 2위 칼 말론(36,928점), 3위 코비 브라이언트(33,643점), 4위 마이클 조던(32,292점)이 뒤를 잇고 있다.

르브론은 지난 3시즌 평균 2,042점을 올렸다. 부상 없

이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올시즌 내로 무난히 조던의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코비의 기록까지 노려볼 만하다.

대기록을 달성한 르브론은 경기 후 ESPN과 인터뷰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위대한 선수들과 이틀을 나란히 하게 될 때면, 나의 고향 애크런이 떠오른다."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나는 여기서 안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르브론은 이날 경기에서 입었던 자신의 유니폼과 경기에서 사용된 공을 'I PROMISE' 학교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의 고향 애크런에 위치한 'I PROMISE' 학교는 지난 7월 르브론이 설립한 학교다.

르브론의 활약 속에 이날 LA 레이커스는 126-117로 승리했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